

5. 유통물류

□ 물류 인프라 구축 수준

- 아프가니스탄은 거듭되는 전란으로 교통인프라가 파괴, 정비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주요 도시 간(카블, 칸다하르
등)은 포장된 간선 도로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장거리 버스
의 이동도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도로 이동 중 각종 테러 및 무면허의 난폭 운전, 부실
하고 파괴된 도로 시설 등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됨
- 한편, 과거에는 국제 열차인 카이바루 철도(아프가니스탄의 카
블 ~파키스탄 사이)이 있었지만, 전란으로 불통이 되었으며,
내륙 지방의 대부분이 산악 지대로 철도가 발달하지 못하였음
- 외국과의 교통을 위해 장거리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 외에
카블시 북부에 있는 카블 국제 공항, 아프가니스탄 남서부 칸
다하르 시내에 위치한 칸다하르 국제 공항 등이 존재하며, 현
재 아프가니스탄의 국제 공항에서 운항되는 항공사 및 노선은
다음과 같음
 - 아리아나 아프간 항공(앙카라, 바쿠, 인도, 두바이, 이슬 라마
바드, 이스탄불, 칸다하르, 우루무치, 모스크바 등)
 - 파미르 항공(두바이, 헤라트, 지터, 리야드)
 - 사휘 항공(프랑 크푸르트, 두바이, 리야드, 지터, 샤르자)
 - 인디언 항공(델리)
 - 캠 에어(뉴델리, 두바이, 헤라트, 칸다하르, 마슈, 마자리샤리)

프)

- 파키스탄 국제 항공(이슬라마바드)

□ 소매가격 동향

- 2010년 9월, 식품 무역 연합 대표인 Fazlur Rahman는 아프가니스탄 언론 기관인 Pajhwok Afghan News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도소매업체에서 파키스탄의 밀가루는 1,020 Afs에 판매되고 있으며, 브라질산 설탕의 경우 2,250Afs에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
- 또한 해당 언론 기관은 5kg 들이 코히누르 버터 기름의 경우 280 Afs, 1kg의 인도네시아산 녹차는 150Afs, 아프카산 블랙티의 경우 190Afs에 판매되었다고 덧붙였다
- Fazlur Rahman에 따르면 최근 파키스탄의 홍수 사태와 밀 수입에 대한 세금 인상이 밀가루 가격의 인상을 주도하였으며, 설탕의 수입량 절감 역시 설탕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하였음
- 한편, 버터 기름과 차 가격의 상승은 아프가니스탄 뿐만 아니라 해당 품목의 수출국 내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
- 쌀은 유일하게 지난 6개월 동안 가격이 줄고 있는 식품 중 하나로 6개월 전 2,400Afs에 판매되었던 50kg 들이 쌀은 최근 카불 시내 시장에서 2,160Afs에 판매되었으며 이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 부터의 수입량 증가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